

韓-튀르키예, 확대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靑, '공군 1호기 개인정보 유출' 긴급회의

외교부, 해킹 아닌 업무 관련자 무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약 5개월간 인터넷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외교부는 외부 해킹이 아닌 업무 관련자의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2일 유료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탈'(VirusTotal)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게시된 사실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출입기자 등 총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외부 해킹보다는 업무 관련자의 유출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유출 주체와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당시 공군 1호기에 탑승했던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권 재발급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AI發 실물·금융충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 1면 '韓, 수출 절반 반도체…'서 계속

신현송 한은 총재도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AI 투자 지속 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그 전개양상과 국내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충격을 키울 수 있는 해외 AI 기업 간 금융연계도 점검 대상이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달 27일 'AI 산업 자금조달의 주요 특징과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서 외부자금 의존도 상승과 투자·구매계약이 맞물린 순환금융 확대에 주목했다.

해외 AI 반도체·클라우드 공급기업이 고객사에 투자하고 고객사는 그 자금으로 공급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고객사가 부실해지면 공급기업도 투자금 손실과 예상 매출 감소를 함께 겪을 수 있다. 이 같은 해외 AI 생태계의 충격이 반도체 공급망과 금융시장을 통해 한국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

연구진은 대형 선도기업의 양호한 재무상황과 실제 수요, 장기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면 AI발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외 AI 산업에서 실물·금융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으로 그 여파가 크게 전달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AI발 실물·금융충격의 전이 강도가 과거보다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김주형 기자 gh471@

생활물가지수 2.6%↑·신선식품지수 6.2%↓

》 1면 '10월 소비자물가 2.8%…'서 계속

석 달째 하락세다. 이 중 농산물이 7.5%나 내렸는데, 특히 채소류(-11.2%)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8%, 5.4% 상승했다. 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5.9%)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양윤영 재경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석유최고가격을 동결한 점이 물가 완화 효과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연간 물가 전망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많아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와 물류비 상승이 물가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해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6% 상승했다. '밥상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6.2%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6년만에 아파트 분양가 67% 급등
'서울 땅값·지방 공사비' 압력 작용

건설산업硏, 분양가격 상승요인 분석
지정학적 리스크에 원자재값 치솟아
서울 분양가 대지비 비중 갈수록 커져

〈연도별 분양가격 상승 요인별 기여도(단위:%p)〉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분양가격 상승률	11.3	7.2	11.3	13.5	4.6	5.3
대지비	3.2	2.5	4.1	5.5	1.8	2.1
공사비	7.3	8.3	4	2.1	1.1	3.5

아파트 분양가가 6년여 만에 7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의 상승폭이 공사비보다 더 확대된 가운데 서울의 경우 비싼 땅값이 분양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분양가격 상승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분양가격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고 보면 올해 6월까지 67%나 올랐다.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는 38.2% 상승에 그쳤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분양가격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간 상승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분양가격 상승이 공사비 증가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두 지수의 격차는 28.8포인트(p)로 2023년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분양가는 해마다 평균 8.9% 올랐다. 상승분 가운데 공사비 몫은 53.5%, 땅값(대지비) 비중은 36.5%였다. 총 90%로 분양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공사비와 땅값이었다.

기간별로는 다소 차이가 났다.

2021~2022년에는 자재비가 분양가를 끌어 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2023~2025년에는 공사비 영향이 줄고 땅값 영향이 커졌다. 특히 2024년이 대표적으로 분양가가 13.5% 급등했다. 이 중 공사비가 올린 비중은 2.1%p에 그친 반면 땅값이 5.5%p를 올렸다. 금융비용·인허가 지연 등 통계로 잡히지 않는 요인도 5.9%p나 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이란 전쟁으로 다시 자재비가 분양가를 밀어 올렸다.

지역별로도 상승구조가 달랐다. 서울은 땅값이, 지방은 공사비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은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다.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6월) 서울 분양가 중 대지비 비중은 61.1%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60%를 넘었다. 전국 평균은 39.0%, 지방은 24.8%였다.

서울의 대지비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21년 48%에서 2022년 51%, 2024년 53%로 올랐다. 2025년에는 65%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8~41%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 분양가에서 자재비 비중은 16.5%에 불과했다. 지방(31.9%)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안정을 위한 처방도 지역별로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분양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획일적 접근보다 지역별 분양가격 구성과 상승요인을 고려한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제한적이고 대지비가 분양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만큼 공사비 관리만으로는 분양가격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고밀·복합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장기화는 금융비용과 사업관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중단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게 핵심이다.

그는 "지방 등은 자재가격·인건비 등 공사원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핵심자재의 수급 안정, 자재·인력의 조달 여건 개선, 시공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압력을 낮출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삼성전자·TSMC, 美 생산 경쟁 가능성 커져

삼성전자, 테일러공장 증설 추진
TSMC, 텍사스주 신규공장 검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생산거점이 위치한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 건설을 검토하면서 양사의 현지 경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 증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결합한 턴키 솔루션 강화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미국 텍사스주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북부 셔먼시에 초기 450억달러(약 60조원)를 투입해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웨이저자 TSMC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월 15일 텍사스에 평가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TSMC는 애리조나주에도 총 265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와는 5년간 20억달러 규모의 실리콘 인터포저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현지 첨단 패키징 공급망 확보에도 나섰다.

TSMC가 텍사스에 생산거점을 추가할 경우 같은 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AI 반도체 생산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수주와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주요 경쟁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美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테일러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설비투자 계획은 76조 8000억원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29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선단 공정의 생산능력 증설이 고객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일러 1공장은 클린룸 가동과 설비 반입을 시작했으며 추가 공장 건설도 검토 중이다. 올해 2나노 공정 수주 과제 수는 202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TSMC와의 경쟁에서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결합한 턴키 솔루션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생산부터 후공정까지 통합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활용해 AI 반도체 고객사 확보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HBM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27년 HBM 공급 물량은 목표 가격 수준에서 협상을 마쳐 모두 판매된 상태다. 올해 3분기 HBM4 매출은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HBM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 수준으로 확대됐다.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일본 요코하마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랩(APL)을 개소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약 3500억원을 투자해 유리기판과 하이브리드 본딩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1월 1일 APL을 방문해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TSMC의 텍사스 진출이 삼성전자에 새로운 수주 기회와 경쟁 부담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만큼 현지 파운드리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며 "TSMC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생산을 맡기려는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